

“나일로 세대 가르는데 옳지 않아”

이준익 감독, 이시대 청춘 그린 ‘변산’ 내달 4일 개봉

“청춘과 아재는 상호보완 관계지 배타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영화 속에서 구현해보려고 했어요.”

1,000만 영화 ‘왕의 남자’를 비롯해 ‘황산벌’, ‘사도’ 등의 시대극과 ‘라디오 스타’, ‘즐거운 인생’ 등 현대극을 오가며 관객들을 만난 이준익 감독이 이시대 청춘을 그린 영화 ‘변산’으로 돌아왔다.

다음 달 4일 개봉하는 ‘변산’은 아르바이트로 일상을 보내지만, 래퍼의 꿈을 이루기 위해 밤을 새워 곡을 쓰는 ‘학수’(박정민 분)가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던 고향으로 내려가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 감독은 우리나라 나이로 올해 60세다. 숫자상으로 ‘청춘’은 커녕 ‘꼰대’라고 불릴 나이도 지났다.

이 감독은 그가 찍은 청춘영화가 이른바 ‘꼰대질’로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고 했다.

“저 자신이 꼰대죠. 그러니까 당연히 걱정했죠. 하지만 나이 차로 세대를 가르고 사회적 통념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꼰대 속에 청춘이 있고, 청춘 속에 꼰대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변산’은 청춘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청춘의 아픔과 슬픔, 미래는 사실 아버지 세대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학수는 어머니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아버지를 증오하며 고향을 떠났다. 그러나 학수는 서울에서도 고향과 아버지에게 대한 미움을 완전히 지워 내지 못했다.

그가 6년째 도전한 랩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번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탈락한 것도 결국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고향과 아버지에게 대한 응어리 때문이다.

“꼰대 입장에서 자신의 과거를 되짚어서 현재의 청춘과 비교하는 것은 수많은 거짓과 위선을 포함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각색해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쪽으로 머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감독은 자신을 객관화해서 수많은 거짓과 위선을 온전하게 도려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때문에 ‘지금의 청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고, ‘아니야 너희 삶은 무조건 좋아’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못났든 잘났든 서로 다른 게 현실이니까. 현실 그대로 인정하면서 아우르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청춘”을 주제로 한 영화라는 점에서 ‘변산’은 지난달 개봉한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과도 비견된다.

다만, 이창동 감독은 오늘날 젊은

이의 절망과 분노에 주목한 반면, 이준익 감독은 희망을 이야기했다. 같은 주제를 정반대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다.

이에 대한 이 감독의 답변은 ‘과거를 해석하는 관점은 몇 가지에 불과하지만 현재를 바라보는 시선은 수많은 관점이나 입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시선이 공존하는 거죠. 제가 말하는 청춘은 희망이에요. 그런데 희망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절망이에요. 절망의 끝을 보여줄 때 진정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버닝’이라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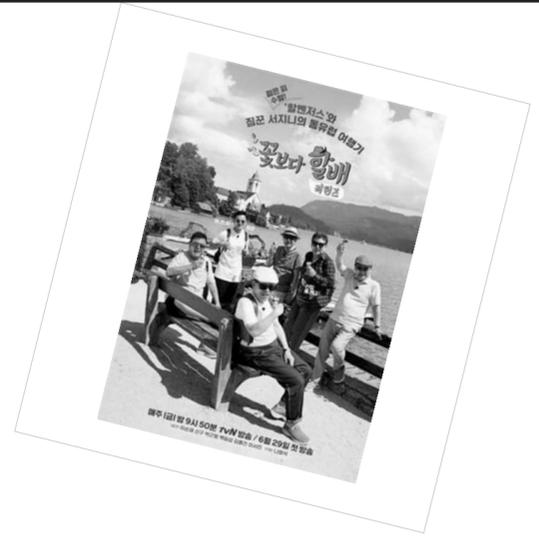
아울러 이 감독은 “이창동 감독은 절망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으니 제가 더 수준이 낮다”며 “저는 통속적인 상업영화 감독이고 이 감독은 세상을 섬뜩하게 바라보는 예술가라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감독은 전작 ‘라디오 스타’(2006년)와 ‘즐거운 인생’(2007년)에서 ‘록’을 화두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지만, 이번에는 익숙지 않은 랩을 매개체로 삼았다.

“제가 오버한 거예요. 저는 록에 익숙한 사람이고 고상하다고 하면 재즈나 클래식이죠. 갑자기 60이 다 돼서 합합을 들고나온 건 심하게 오버한 거죠.”

이 감독 자신이 랩을 전혀 모르는 만큼 배우와 스태프에게 거의 전적으로 의존했다고 한다.

“박정민이 랩 가사는 거의 다 썼고 비트는 ‘안키’라고 하는 래퍼가 만들어줬어요. 저는 이래라저래라 간섭 못 하죠. 내가 모르는 부분을 왜 간섭해요. 어린이에게도 배우는데 제가 모르는 건 청춘에게 물어보면서 하면 되죠.” /연합뉴스



‘꽃보다 할배 리턴즈’ 29일 첫 방송

김용건 합류…특색있는 동유럽 도시 여행

tvN은 나영석 PD가 연출하는 예능 ‘꽃보다 할배 리턴즈’를 오는 29일 밤 9시 50분 첫 방송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즌에는 기존 멤버인 이순재(83), 신구(82), 박근형(78), 백일섭(74)에 더해 김용건(72)이 ‘새 얼굴’로 합류, 동유럽으로 떠난다. 이서진은 이번에도 ‘짐꾼’이다.

변함없이 박학다식함을 자랑하는 이순재와 영월한 ‘귀염둥이’ 신구의 모습은 지난 여행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며 반가움을 더한다. 여기에 여행길마다 들도 없는 든든함으로 ‘꽃할배’ 들을 사로잡은 로맨티스트 박근형과 김용건의

합류로 막내를 탈출한 백일섭의 환한 표정이 웃음을 자아낸다.

나영석 PD는 “특색있는 동유럽의 도시들이 주는 다양한 느낌들이 색다른 재미를 줄 것이다. 새롭게 합류한 김용건 선생이 큰 활력을 불어넣으며 새로운 관전포인트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첫 방송을 앞두고 오는 22일 밤 9시 50분에는 ‘꽃보다 할배 스페셜:그뻘 그랬지?’가 시청자들을 먼저 찾아간다. 지난 ‘유럽&대만편’, ‘스페인편’, ‘그리스편’ 등 그동안 거친 꽃할배들의 여행 발자취를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다.

조재현, 또 한 번 성추문 휩싸여

재일교포 여배우, 16년 전 성폭행 피해 주장

배우 조재현(53)이 또 한 번 성추문에 휩싸였으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SBS funE는 20일 재일교포 여배우 A씨가 16년 전 조재현으로부터 드라마 촬영 현장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보도했다.

SBS funE는 또 뒤늦게 피해 소식을 접한 A씨의 어머니가 당시 조재현을 직접 찾아가 항의했고, 조재현은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고 고백하며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또 A씨가 해당 사건을 겪은 후 수년간 우울증에 시달렸고 극단적인 선택의 문턱까지 갔으며 지속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재현 측은 이런 보도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조재현 측 법률대리인은 20일 통화에서 “조재현이 2002년 방송국화장실에서 A씨를 성폭행 한 일이 없다. A씨가



조재현을 잘 따랐고, 합의에 관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사건 이후) 이를 더 문제 삼

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조재현이) A씨 측에 수차례 송금한 돈이 7천만~8천만원이다. 그럼에도 모친이 계속알리겠다고 협박했고 최근에도 A씨 측에서 3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조재현 측은 그러면서 A씨를 공갈미수로 곤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현은 지난 2월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too. 나도 당했다)를 통해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지목했으며, 이후 대중에서 사과하고 tvN 드라마 ‘크로스’를 마지막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영화 ‘박화영’

10대 관객 잡아라

청소년 주인공 내세운 영화 잇단 개봉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영화가 속속 극장에 내걸린다.

다음 달 12일 개봉하는 ‘속닥속닥’(최상훈감독)은 수능을 끝낸 고등학생 6명이 주인공이다. 학원공포물을 표방하지만, 영화 무대는 학교 밖이다.

버려진 놀이공원에서 섬뜩한 소문이 있는 귀신 집을 우연히 발견한 6명이 그곳에서 진짜 귀신과 마주치고 극한의 공포를 경험한다는 내용이다.

한동안 한국 공포영화들은 10대와 20대 초반 관객을 겨냥해 주로 학교를 무대로 삼았다. ‘여고괴담’ 시리즈, ‘고사:피의 중간고사’ 등이 대표적이다.

학원 공포물은 고정 관객층이 있는 데다 저예산으로 만들 수 있어 신인감독과 여배우들의 등용문 역할을 했다. 그러나 비슷한 소재의 영화가 쏟아져

나오면서 인기가 시들해졌고, 한동안 극장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속닥속닥’은 학교를 벗어나 10대들에게 익숙한 놀이공원을 공포의 공간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기존 작품들과 차이가 있다.

7월 19일 간판을 거는 ‘박화영’(이환)은 열여덟 살 여고생을 전면에 내세웠다. 가족 없이 혼자 사는 화영(김가희 분)은 자기 집을 친구들에게 아지트로 제공해 친구들 사이에서 엄마로 불린다. 화영은 친엄마한테는 못된 행동을 일삼으면서도, 친구들한테는 “니들은 나 없으면 어쩔 뻔했냐”며 희생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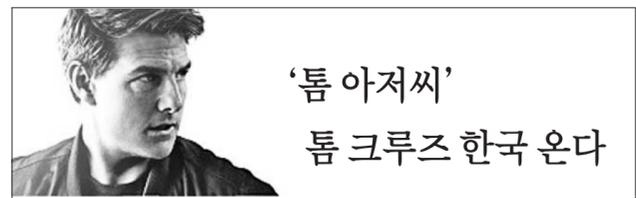
엄마 역할을 자처한다. 화영은 특히 무명 연예인인 단짝 미정(강민아)을 유난히 챙긴다.

영화는 화영과 그녀를 둘러싼 이들 사이의 기형적 관계를 그린다. 제작사 명필름은 “들어는 봤지만 본 적은 없는, 지금 10대들의 생존기를 정면으로 다룬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암살’ ‘밀정’ 등에 조연으로 출연한 이환 감독장편 데뷔작이다.

박훈정 감독의 ‘마녀’(6월 27일 개봉) 역시 여고생이 주인공이다. 보호시설에서 수많은 이가 죽는 사건이 벌어진

날, 한 소녀가 홀로 탈출해 살아남는다. 10년 뒤 모든 기억을 잃고 평범한 여고생이 된 자은(김다미) 앞에 의문의 인물이 나타나면서 미스터리한 사건이 벌어진다. 나약한 여고생이 결정적인 순간 감춰진 괴력을 발휘하며 액션 여전사로 탈바꿈하는 모습은 비슷한 또래들에게 강한 쾌감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여중생A’(이경섭)는 자존감이 바닥인 여중생 미래(김환희)가 처음으로 사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상처받고 성장해나가는 이야기다. 동명 인기 웹툰이 원작으로, ‘곡성’에서 빼어난 연기를 선보인 김환희가 주연한다. 중학생들의 친구 문제, 가정폭력 등 현실적인 문제를 담아내며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지난 20일 개봉해 1만1천85명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5위로 출발했다.



‘툼 아저씨’ 톰 크루즈 한국 온다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개봉 앞두고 내달 내한

한국 팬들 사이에서 ‘친절한 톰 아저씨’로 불리는 톰 크루즈가 올여름 다시 한국을 찾는다. 그의 내한은 이번이 9번째다.

21일 롯데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톰 크루즈는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미션 임파서블6) 개봉을 앞두고 7월 16일 한국을 방문한다. 2016년 11월 영화 ‘잭 리처:네버 백’ 홍보차 내한한 이후 약 1년 반 만이다.

‘미션 임파서블6’에 출연한 헨리 카빌과 사이먼 페그,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도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맨 오브 스틸’ ‘배트맨 대 슈퍼

맨:저스티스의 시작’에서 슈퍼맨으로 활약한 헨리 카빌은 이번엔 ‘미션’ 시리즈에 처음 합류했으며, 한국을 찾는 것도 처음이다.

사이먼 페그는 ‘스타트렉 비욘드’(2016) 이후 두 번째 한국 방문이다.

이들은 레드카펫을 통해 한국팬들과 만나고,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션 임파서블6’는 최고 스파이 요원 에단 헛트(톰 크루즈)와 IMF 팀이 피할 수 없는 미션을 끝내는 내용을 담았다. 7월 25일 국내에서 전 세계 최초로 개봉한다.